

“전남으로 오세요”...서울 광화문광장 페스티벌 개막

1만여명 참여...전남 방문의 해 홍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4대 행사
1억명 유치...‘K관광 대도약’ 선포

전남 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한 페스티벌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막, 이틀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2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초청 인사 및 출향 지역민, 서울시민 등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전남도가 목표하고 있는 관광객 1억명, 해외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한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을 선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진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이날 개막식과 축하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4대 대형 행사와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축제, 고향사랑기부제, 귀농·귀촌 정책 등을 소개하는 홍보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 행사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관광객 및 시민들이 전남도 관광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보 부스를 운영하고 전남 관광사진전도 펼친다. 개막 첫날에는 56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인 ‘영국남자’와 함께하는 전남 방문의 해 홍보단 출정식, 가수 에일리, AB6IX, 하

아키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케이팝(K-POP)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롯데이티비(주), ㈜모두투어인터내셔널, ㈜하나투어아이티씨 등 국내(인바운드) 대표 여행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와 전남 관광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아 관심이 집중됐다.

김영록 지사는 “4월부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남도음식문화잔치, 전국체육대회 등 다양한 메가이벤트와 100여개의 다채로운 축제가 쉼 없이 이어진다”며 “언제 어디를 찾아오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세계 속 K-관광의 중심 전남을 방문해줄 것” 요청했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등 4대 메가이벤트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상파 방송 ‘6시 내고향’ 현장 특별 생방송도 진행해 현장을 찾은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올해를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전남 방문의 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관광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펫 페스티벌’, 700만 캠핑인구를 위한 ‘캠핑관광박람회’, 엠지세대 ‘전자무음음악(EDM) 페스티벌’ 등 1년 내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방침이다. /정근산 기자

전남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60억 아꼴다

작년 33만명 무료 데이터 사용
1,669회선 추가·버스 5G 개설편

전남도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통신비 절감에 특목한 효과를 내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240억원을 들여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한 결과, 지난 한해 60억원의 개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 비율로 부담했다.

지난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료 와이

파이 3,979회선에 대한 운영 성과를 보면 이용 건수가 전년(2억1,000만건)보다 48% 증가한 3억1,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데이터양으로 환산하면 전년(1,726테라바이트)보다 41% 늘어난 2,463테라바이트로, 60억원이 넘는 개인 통신비를 아낀 셈이다. 이는 전년(15억원)의 약 4배 규모다.

또 2022년 과기정통부 발표 개인 LTE 평균 월 사용량(7.6GB)을 기준으로 하면 약 33만명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영화로는 63만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양이다.

이처럼 이용자가 급증한 것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보건소, 버스 승강장, 도서관 등 도민 생활 동선과 밀접한 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올해도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1,669회선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고, LTE 기반의 버스 와이파이 500대는 5G 기반으로 전면 전환해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금숙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도민이 디지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통신비를 절감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포스코, 지역과 동반성장 나서라”

전남도는 21일 ㈜포스코홀딩스의 포항 이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계열사 일부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포스코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17일 서울에 있는 본사 소재지를 포항으로 최종 변경했다”며 “전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 지역민들은 지난 40여년간

환경피해 등을 감내하면서도 포스코가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전남에도 그룹 차원의 조치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희생에 보답하고 광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남에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일부를 전남에 이전하는 등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 아시아 캐릭터랜드 사업비 가파스로 부활

시의회 예결위 “부실용역 보완”

부실 논란으로 설계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던 광주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예산이 가파스로 부활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본예산 7조 1,102억원보다 1,216억원(1.7%) 증가한 7조 2,31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의 첫 단추 격인 설계용역비 7억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되살아났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광주

북구 옹동동 광주디자인진흥원 내에 국비 144억원, 지방비 152억원 등 296억원을 들여 체험학습과 교육 연구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EBS 등과 함께 국내 유명 캐릭터와 광주, 아시아 우수 캐릭터 융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앞서 관련 상임위원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추경예산 심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설계용역비 전액을 삭감했다.

광주시는 상임위 심사 후 용역보고서를 재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으며 예결위는 사업 기대효과와 국비 매정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부활시켰다.

반면, 시민참여 예산으로 요구된 K뷰티기술영상 콘텐츠 앱개발비 1억5,000만원은 사업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효과성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전액 삭감 의결됐다. 청사시민편의공간조성 1억4,300만원, 발달장애인통합돌봄운영 인력지원 1억1,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3억원, 광주 인공지능(AI) 기업 기술활용 시민제안 및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지원비 1억 원 등도 나란히 삭감됐다.

시의회는 22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차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서동용, ‘정순신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21일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신설조항은 제17조의 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으로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 선임,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 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



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학생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는 안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 밖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2023 WORLD WATER DAY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주 제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2023. 3. 22.(수)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영산강유역환경청